

# 미 수은 2015년 경쟁력 보고서 정리

(2016. 8. 10)

워싱턴 사무소

미 수은법에 의거, 동 수출신용 경쟁력 보고서는 타 수출 신용 기관들(G-7 ECA)와 미 수은과의 수출신용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후 매년 6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

## 1. 개 요

- (배경) 미 수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은 전년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했지만 초유의 재인가 연장 실패\*, 이사회 멤버 쿼터 부족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경쟁력은 다소 저하

\* '15.6월말에 중단된 미 수은 Charter는 12.4일 양원의 초당적 합의에 의해 오바마 대통령 서명 후 '19. 9월말까지 재 연장

- '15년은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해외 수출신용기관의 공격적 영업이 두드러졌고, 상업은행의 중장기 시장 참여저조로 대규모 사업에서 EC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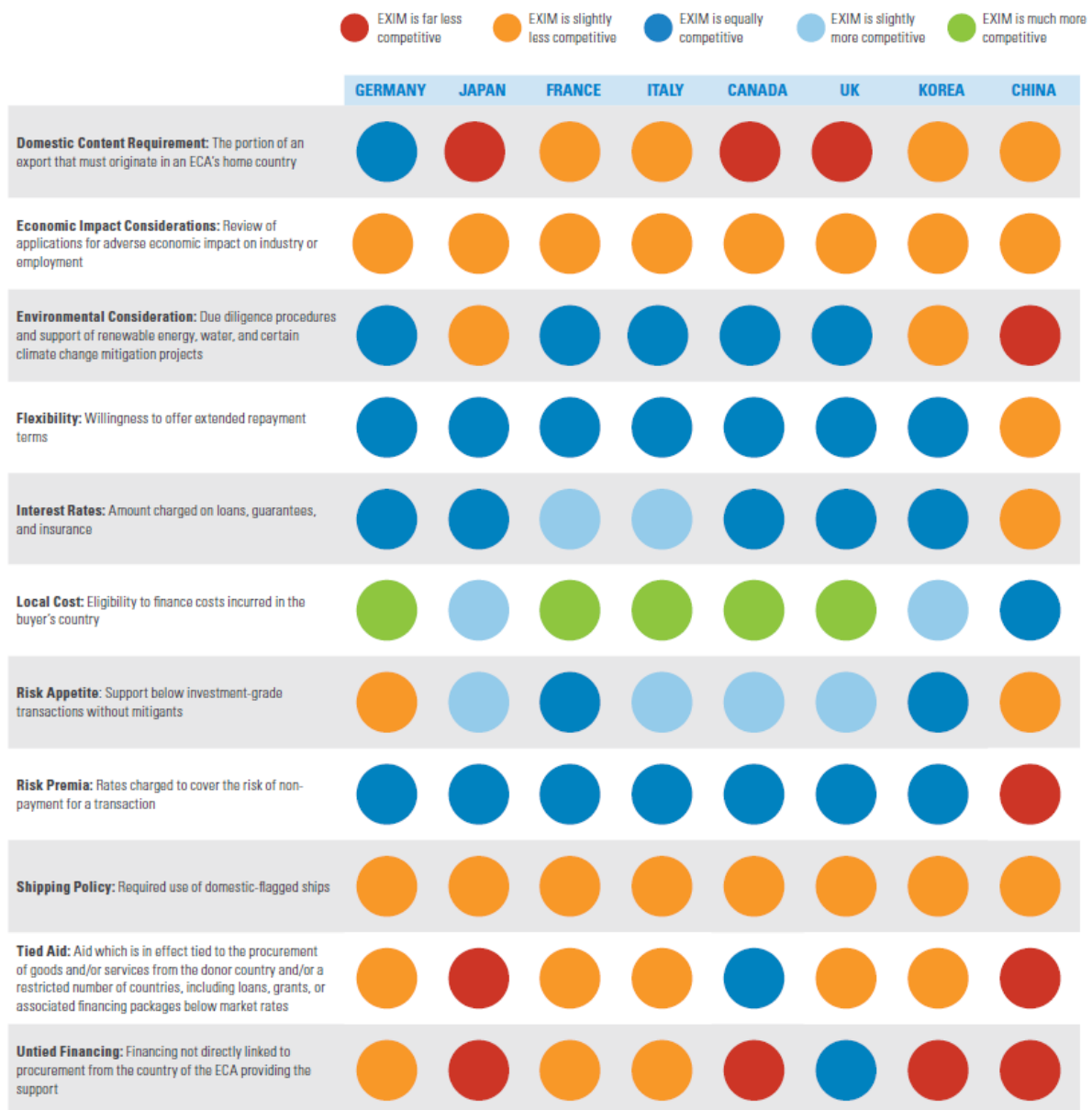
- (특이점) 전체 중장기 수출신용사업의 66%가 OECD 협약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수출신용을 통해 지원

- 전체 수출신용의 절반 이상(55%)을 한, 중, 일 3개국에서 제공
- 특히 중국은 작년 미국 수은 대비 10배 이상의 수출금융을 제공(전년도 8배에서 더욱 증가)한 점을 강조
- '15년 미 수은 재인가 문제로 800건 이상의 수출보험 갱신 실패

## 2. 타 ECA 대비 부문별 경쟁력

□ 미 수은 Local Cost, Risk Appetite 외에 거의 모든 측면에서 타 ECA들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자체 진단

○ 특히 OECA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국 ECA들에 대해서는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 열위 분석



### 3. 수출신용 최근 이슈

- (중장기 수출금융) 최근 5개년 간 OECD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은 수출금융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 : 협약 적용 분 비중이 2011년 50%에서 2015년 33%로 감소

<※ 한, 중, 일 Untied and Market Window 추정(10억불)>

	2011	2012	2013	2014	2015
China*	2	3	3	8	8
Korea	2	3	3	8	8
Japan*	2	3	3	8	8
Other OECD	9	13	14	7	7
<b>TOTAL</b>	<b>15</b>	<b>22</b>	<b>23</b>	<b>31</b>	<b>31</b>

\*Untied financing is not reported by China and Japan but is assumed to be comparable with the figures reported by Korea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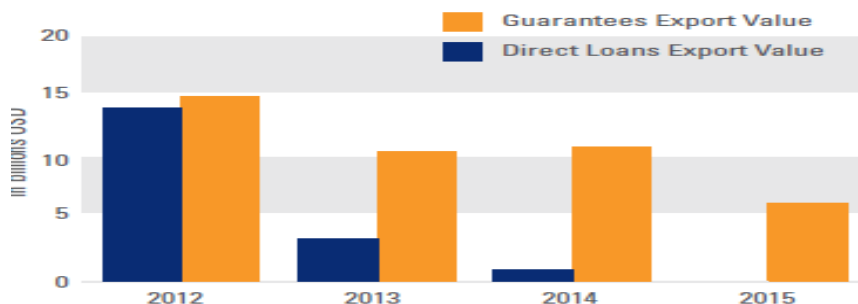
Sources: EXIM, bilateral engagement

- 수년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중장기 인프라 사업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출금융 규모는 축소, 다만 OECD 협약 외 수출금융의 감소세가 OECD 협약 내 수출금융 감소세보다는 완만
- (수출금융 영향) 최근 달러화 강세와 해외 수출금융 수요 감소로 인해 대외무역이 미국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
  - 각국은 수출금융의 중요성 증가와 해외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자국 공적 수출신용의 범위와 역량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, 해외 사무소 설치 등을 통한 물리적 외연도 확장
  - \* 비적격 투자등급 국가와 중장기 수출신용을 지원하는 상업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및 5, 7년 이상 장기 사업의 증가 추세로 인해 자본재 수출 관련 ECA에 대한 금융 의존도는 최근 더욱 심화
- (ECA들의 전략 변화) 각국 ECA들은 2015년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도모
  - 90% 이상의 ECA들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, 최근 OECD 협약외 수출금융, 투자 금융 등의 수단 확대 노력

#### 4. 경쟁력 결정 요소

- (Risk-Taking Appetite) 시장 참가자들은 미 수은의 위험 감수 태도에 대해 장기는 “Competitive“, 중기는 “Less competitive“로 평가
  - 미 수은은 개별차주 및 차주국가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를 하지 않아 장기금융의 경우 타 ECA 대비 “Competitive”하나, 중기금융은 담보, 개인보증 징구 등 부가적 담보 조치로 인해 “Less competitive”
  - 2015년 미 수은 승인건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“Medium-to-high risk” 범주에 속함
- (Interest Rates) 직접 대출을 통해 저리의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나, 2015년에는 직접 대출 수요 자체가 거의 없었음

〈미 수은 보증 및 직접 대출 추이, 10억불〉



- 금융 비용 측면에서 달러 접근성이 우수한 미 수은은 여전히 타 OECD ECA 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으나, 달러 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
- (Risk Premium) OECD 및 유럽 국가들 대비 미 수은의 리스크 프리미엄 수준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
  - 특히 프랑스와 캐나다 등 경쟁국로부터 시장점유율을 위협받는 Satellite 산업 등에서 경쟁력 있는 프리미엄 수준 보유

## 5. 주요 부문 경쟁력 분석

- (항공기 금융) 전년대비 감소한 항공산업 승인 금액\*에서 보듯이, 재인가 문제와 안정된 펀딩 소스로서의 미 수은에 대한 시장인식 변화로 경쟁력이 다소 하락

\* 2015년 미 수은의 항공산업 승인 금액은 41억불로 2014년 대비 47% 감소

- 미 수은 보증부 채권이 여전히 항공산업 금융에서 경쟁력이 있긴 하나,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들의 경우 최근 풍부해진 금융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직접 조달하는 경우도 늘고 있음
- (프로젝트 파이낸스)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은 최근 1) 상업 금융기관들의 위축, 2) OECD 협약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의 진입이라는 두 가지 트렌트로 인해 상당한 변화 체험
  - 타국 ECA들의 경우, 전통적인 수출금융 이외에 **OECD** 협약 외 수출금융 및 투자금융까지 다양한 톨을 이용하여 지원
  - 수출자들과 금융기관들은 미 수은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해 “Less competitive”로 평가(작년 2건의 Structured Finance 사업 승인에 그쳐 저조한 실적)
- (협조 용자) 두 국가 이상에서 수출하고, 미 콘텐츠 비중이 수출계약의 85% 이하인 사업의 경우, 미 수은은 협조 용자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금융패키지 제공 가능
  - \* 2015년 항공 산업 지원시 45%이상을 협조 용자를 통해서 지원
  - 미 수은은 개별 거래별 또는 포괄 협약을 통한 협조 용자 모두 가능해 타 ECA 대비 “More competitive”로 평가

□ (환경) 미 수은의 환경, 사회 가이드라인은 타 ECA들에 비해 보다 엄격한 것으로 평가

\* 미 수은은 작년 신재생 에너지사업 1건 지원으로 노력에 비해 저조한 성과

- 덴마크와 독일 ECA들이 신재생 에너지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, 특히 중국의 경우, 2015년 약 60억불 이상을 지원해 타 OECD ECA들의 지원 총합보다 많은 금융을 지원

\* 중국 및 유럽 ECA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환경, 사회 부문 심사를 통해, 동 부문 지원액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며 고객기업들도 이를 선호

□ (서비스) 미 수은은 2015년 서비스산업 지원액이 감소\*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타 ECA 대비 “Slightly more competitive”로 평가

\* 엔지니어링, 컨설팅, IT산업, 통신서비스 산업 등에 2015년 중 약 3.75억불의 금융을 지원

-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미 수은은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- 이와 관련 서비스 수출시 미 수은 금융 이용에 있어서, 수출자들과 해당 금융기관들의 불만 중 대부분은 미 원산지 입증과 콘텐츠 비중에 집중